

이남오 군수, 민선 9기 출범 100일 ‘함평 대전환’ 시동

5대 분야 74개 공약 실행 계획 수립
미래 산업·민생 경제 회복 현안 속도
RE100미래산업 육성·민생회복지원금
14일 타운홀미팅서 성과·청사진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함평 대전환’을 기치로 미래산업·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8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이남오 군수가 새로운 군정 비전과 4대 군정 방침을 확정하고 5대 분야 74개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핵심 현안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의 ‘RE100 미래산업 거점’ 육성이다. 이를 위해 산단 330만5천785㎡(약 100만평) 추가 확장을 추진하고 IG



이남오 함평군수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공동 대응을 위해 최근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W급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AI·반도체·미래차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천272억원을 편성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

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는 반

값 주거와 만원 주택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감형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농축산업은 수직형 스마트팜 보급, 국가 단위 육종센터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관광·생활체육은 기존 단발성 축제 중심에서 벗어나 돌머리해수욕장 등을 연계한 해양치유·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며 함평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을 확충한다.

군은 오는 14일 군민 100명을 초청하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민선 9기 주요 성과와 향후 청사진을 현장에서 공유하며 소통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지난 100일이 군정 방향을 세우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구체적 성과로 답할 시간”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 함평의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전남광역자활센터 ‘도농 연계 자활 포럼’ 성료

전일빌딩245서 지역특화형 정책 논의
자원 연계 모델 개발 참여 선택권 확대
의견 수렴 지속 가능 협력 체계 구축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최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2026년 전남광주 지역특화형 자활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자원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센터가 추진 중인 ‘도시·농촌 자활 참여 기회 연계 모델 개발 연구’의 중간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경휘 예수대학교 교수가 ‘도시·농촌 자활 참여 기회 연계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 추진 내용을 발표했으며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인구 구조와 일자리 여건 등 도농 간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상호 연계해 참여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최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2026년 전남광주 지역특화형 자활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전남광역자활센터 제공〉

특히 단순한 사업 연계를 넘어 지역별 자활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 현장 과제로 제시됐다.

센터는 포럼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농촌 자활 참여 기회 연계 모델 개발 연구’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 연계 모델과 정책 과제를 마련해

향후 자활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국 전남광역자활센터장은 “전남과 광주 자활 현장이 함께 도농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연구에 충실히 반영해 실제 활용 가능한 연계 모델과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군,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복지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데이터 결과 검증 자료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6일 “보건·복지·청소년 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특성에 맞춘 ‘2026년 유관기관 연계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한국

그린케어, 제이러브팜, 꽃과함께 등 3개 치유농장에서 기관별 8회기로 진행된다.

기존 단순 농촌체험을 넘어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나 복지센터 이용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평가도 이뤄진다. 각 농장은 첫 회기 시작 전 안면 영상·맥파 측정 장비, 악력기 등을 활용해 참여자의 심리·생리 상태를 사전 진단했다.

군은 해당 데이터를 프로그램 사후 측정 결과와 비교 분석해 치유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우수 시설 인증·서비스 확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와 연계해 다양한 대상자의 신체·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의 치유적 가치를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접목해 무안형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군이 농업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구현을 위해 지난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전기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신안군 제공〉

곧바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맞춤형 실습 위주로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읍·면 지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차별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정원 총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기계는 필수 장비인 만큼 정확한 조작법과 안전수칙 숙지가 최우선”이라며 “영농 현장에 바로 쓰일 실습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영암군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도입

정부양곡 매입 등 온라인 내역 확인
QR코드 현장 구매…자료 누락 방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6일 “농가가 자신의 매입 등급과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암형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정부양곡 매입 업무부터 해당 플랫폼을 본격 적용해 현장 구매 절차를 개편할 계획이다.

새 플랫폼이 적용되면 현장 구매 시 정보무늬(QR코드)로 농가 정보를 확인하고 검사 등급을 입력한 뒤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수기 작성 업무를 대폭 줄이고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누락과 입력 오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플랫폼 적용 범위도 기존 시범사업의 건조벼를 비롯해 산물벼, 친환경벼, 가루쌀, 파해벼 등으로 넓혀 창고별 물량과 재고까지 체계적으로



지난해 영암군 공공비축미 구매 현장. <영암군 제공>

연계 관리한다.

군은 현장 적용을 앞두고 7일 서호면 월출산농협 쉼터앞에서 군과 읍·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모의 구매를 실시해 시스템 전반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이 매입 정보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농가 불편은 줄이고 현장 업무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서 ‘전남광주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9-11일 오시아노 관광단지 4천명 참여
캠핑용품·카약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6일 “회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가을 캠핑과 지역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 박람회’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주최하고 해남군이 주관하는 박람회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 100여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 최신 캠핑 트렌드를 선보인다.

전국에서 780여개 팀 4천여명의 캠핑객이 오시아노의 자연을 만끽할 예정이다. 올해는 캠핑객을 대상으로 5일장 투어와 김치 담그기 등 다채로운 지역 문화 체험을 마련해 관광·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람회장에서는 동호회 캠핑존(RV·백패킹)을 비롯해 옹골 전시·시승, 캠프닉존, ESG 캠핑휴게소, 수상레저 카약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일인 9일 오후 6시 열린 오시아노 뮤직페스타에는 래퍼 키썬, 밴드 앤본의임, 가수 김희재가 무대에 올라 가을밤 캠핑의 낭만을 더한다.

해남군은 야외 행사인 만큼 진드기 해충 방제와 풀베기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단순한 캠핑을 넘어 해남의 매력적인 관광과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섬지역 원격진료 ‘어복버스’ 도입

29개 섬 경로당 설치…의료 격차 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6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없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해 정기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9개 섬 경로당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이 섬을 벗어나지 않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의료진의 진료와 정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섬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